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7<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7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 31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8 번 시편(Psalm) 127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야고보서 (James) 2:14-26 김숙희 집사

찬 양 Anthem 찬양대

설 교 Sermon “**신앙을 삶으로(5) – 삶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김일선 목사  
(Living out Your Faith – Faith and Life Together)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 38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 삼을 때가 많았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교만과 위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제부터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한글개역 **약2:22**)

“You see that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and his faith was made complete by what he did.” (NIV **James 2:2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11 (주일)	7/12 (월)	7/13 (화)	7/14 (수)	7/15 (목)	7/16 (금)	7/17 (토)
	수14,15	수16,17	수18,19	수20,21	수22	수23	수24
본문	시146,147 렘7 마21	시148 렘8 마22	시149,150 렘9 마23	행1 렘10 마24	행2 렘11 마25	행3 렘12 마26	행4 렘13 마27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7/14수 오후7:30)	“은혜와 섬김에 참여함에 대하여” (고후8:1-15)
토요 새벽기도회 (7/17토오전6:30)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46:1-9)

지난 주일(7/4) 말씀

“**신앙을 삶으로(4) – 차별하지 말라**”(약 2:1-13)

야고보서의 본문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야고보서 2장)에서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를 전하기 위해, (먼저는) “무엇이 참된 믿음이 아닌지?” 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여전히) 편 가르기를 일삼고, (여전히) 차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전하는 ‘차별과 관련된 1) 첫번째 메시지는 차별은 곧 죄이며,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코) 묵인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며, 2) 두번째 메시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므로써,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차별을 극복하며?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전해주는 마지막 3) 세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차별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는데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차별의 반대는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러한) 차별 없이, 누구나 존중 받으며, (서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